인터뷰 보유자 이 영 재氏

“포천 국악-연극協 공동 연말께 ‘메나리’ 무대에”

“포천메나리 농악단을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어린시절 농사소리를 들으며 지금까지 ‘포천의 소리’를 지켜온 포천메나리 보유자 이영재씨는 지난해 포천메나리 농악을 발굴해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다.

“사라진 메나리를 발굴하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농악을 발굴하게 됐죠”

포천종합고등학교 풍물반 솔쉴 여명이 매주 토요일 전수회관에서 풍장을 익히며 메나리의 명맥을 잇고 있는 것.

비록 50여명의 보존회원들이 활동하지만 60대 이상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메나리 전승·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 회원 확보의 어려움과 메나리 홍보, 부족한 운영비 등 산적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재씨는 보존회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국악협회 포천지부장을 맡기도 했던 이씨는 포천 국악협회와 연극협회 공동으로 포천메나리 무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대화된 연극과 국악이 어우러지면 넓은 공간이 없어도 압축된 메나리의 진수를 올 연말쯤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다 자원봉사모임 여울회와 함께 포천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에도 여념이 없다.

“지난달에 장애인시설 소망원을 방문했으며, 앞으로 8곳을 방문해 메나리 소리도 들려주고 옷가지들을 수거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형복기자 bok@kgib.co.kr

‘메나리’ 흥겨움에…농부들 어깨춤 절로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34>

제35호 포천 메나리

<보유자 이영재·김봉길>

닾보유자인 호적수 김봉길씨

43번 국도를 따라 의정부를 거쳐 북으로 오르면 이동갈비와 막걸리로 유명한 포천에 다다른다. 경기 동북지역에 위치한 포천은 산세가 높은 강원도 철원과 인접해 있고 명성산(923m)과 지장산(877m), 국망봉(1천168m), 백운산(904m) 등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포천의 명산과 함께 신선한 물줄기가 또한 장관을 이룬다. 산정호수를 비롯 약사동 계곡과 선유담, 백운계곡, 한탄강이 조화를 이루며 최근에는 일동·이동 온천 등이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경기도중 비교적 산지가 많은 포천지역이지만 가산면과 군내면 일원은 넓다란 농지가 펼쳐져 있다.

옛말에 ‘가평군 논보다 포천 가산면 논이 더 많다’고 불릴만큼 넉넉한 논농사를 짓던 곳이다.

여기다 포천 사람들은 농지 인근 야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풀을 베어 논농사의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때 힘든 농사일과 함께 농군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웠던 것이 농요이며 포천은 지리적 환경과 일의 성격에 따라 특유의 소리를 만들었다.

특히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5호 포천 메나리(보유자 이영재·김봉길)는 산과 들이 고루 퍼져 있어 여러 종류의 농요를 간직하고 있다.

포천지역 산·들 고루 넓게 퍼져 여러 ‘농요’ 독특한 소리로 발전

지난해까지 포천메나리 보존회장을 맡았고 올해 유태균씨에게 자리를 넘겨 준 이영재씨(71·포천시 가산면 방축리)는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도 여유와 흥을 잃지 않았던 우리 조상님들의 소리를 보존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메나리’는 키가 큰 풀과 피를 뽑는 두벌논매기 작업을 할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메나리는 원래 강원도와 경상도, 충청도 일부지방에서 전승된 민요이며, 그 유래는 ‘산유화(山有化)’를 풀어서 ‘뫼몰이’라는 설과 옛 민요 ‘미나리꽃은 한철이라’ 하는데서 왔다는 설이 있다.

또 이영재씨는 “산이 많은 포천에서 ‘산 뫼’자를 오랫 동안 써오면서 ‘뫼’가 ‘메’로 바뀐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하튼 포천은 강원도 메나리가 밭농사 중심이라면 포천은 논농사를 지으며 독특한 소리로 발전했다.

현재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일원에서 불리는 농사소리는 입산타령을 시작으로 하산타령, 논갈이(소몰이), 모내기(열소리), 김매기(애벌매기, 긴 방아타령, 곧방아), 새참, 농악, 김매기(두벌매기·메나리), 새엄기 순으로 진행된다.

농사소리는 산을 오르며 풀이나 나뭇짐을 하는 입산타령(아리랑타령)과 고단한 일군이 부르던 하산타령(목동요)을 부른다.

새등같은 등에다가, 태산같이 짐을 지고
여기바라 어렵구나. 다리는 불불 떨리고
땀은 뚝뚝 떨어지는데 어찌나 갈꼬
배는 고파서 어쩌나 갈꼬 (목동요 전문)

우리 농사소리는 ‘하산타령’처럼 꾸밈이 없다. 산에 올라 지게 한짐 가득 싣고 내려오는 목동요(지게꾼소리)는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사설로 엮어 유장하게 풀어낸다. 이어 소를 몰며 논갈이와 써래질을 하고 한쪽에서는 모를 찐다.

농군은 ‘이랴소야 어서가자 이랴소야’를 외치며, ‘해떨어진다 어서가세’ 소를 재촉한다. ‘집에 가서 너도 쉬고 나도 쉬자’는 대목에서는 은근한 인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포천 메나리의 가장 큰 특징은 소리하는 형식이다.

대게 소리꾼이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이 후렴하는 선후창 형식인데 반해 포천메나리는 소리를 메기는 사람, 지르는 사람, 받는 사람, 내는 사람, 맺는 사람 등 5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또 메나리는 ‘되풀이 받기’와 ‘이어받기’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되풀이 받기’는 메기는 소리를 되풀이 해서 남은 소리꾼들이 받는 것이고 ‘이어받기’는 선소리꾼이 메기는 소리에 사설을 이어가는 소리다.

이영재씨는 “5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한명이 맡을 수도 있고 몇명이 편을 짜서 부를 수도 있다”며 “전국 어느 곳에도 없는 포천만의 독특한 소리형식”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포천의 농경문화가 각종 전통문화 경연대회나 대규모 지역축제에서만 그 자취를 엿볼 수 있다.

메기기·지르기·받기 등 5부분으로 구성

보존회원 60대 이상…전수자 절대 부족

농기계화로 자연농법이 사라지고 옛소리를 간직한 어르신들이 하나 둘 작고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인다.

다행히 지난 1988년 포천 메나리 보존회(회장 유태균)를 결성하고, 50여명의 회원들이 30여평의 전수회관에서 매주 1, 2회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이영재씨는 “대회를 준비할 때는 2주간 합숙하며 연습을 하고 있다”며 “군민의 날 행사나 명성산 축제, 억새꽃 축제 등 공개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존회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50대 미만은 서너명에 불과해 전수자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보존회원만으로는 큰 대회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포천종합고등학교 풍물반 학생들을 지도하고 인원을 지원받고 있지요”

이밖에 지금 시대에 맞는 홍보방안 모색과 체계적인 메나리 교육 프로그램, 전수회관 상설공연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